



In brief

발행일: 2024년 5월 7일

GX In brief INT2024-08

IFRS 18 - 금융회사를 위한 이해

주요 내용

IASB는 손익계산서에 계정에 초점을 맞춘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에 관한 새로운 기준서인 IFRS 18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In brief는 금융회사에 가장 관련 있는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합니다.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요구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In brief - IFRS 18 제정 – 재무성과 보고방식의 재정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슈가 무엇인가?

2024년 4월 9일, IASB는 기업 성과 보고의 비교 가능성과 투명성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서인 IFRS 18,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를 발표하였습니다. IFRS 18에 도입된 새로운 요구 사항은 특히 '영업손익'을 정의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유사한 기업들의 재무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지의 공시 요구는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IFRS 18은 :

-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비교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합니다.
- IAS 1을 대체할 것이며, IAS 1의 다른 기준 원칙 중 상당수는 제한적인 변경을 제외하고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리고;
- 재무제표 항목의 인식이나 측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기업이 보고하는 '영업손익'의 정의가 바뀔 수 있습니다.
-

IFRS 18에서 소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 손익계산서의 구조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 통합과 세분화
- 외화 및 파생상품

이 In brief 는 이러한 각 항목에 대하여 금융업에 중점적으로 해당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또한 (1) 투자 및 소매 은행과 (2) 보험사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예시로 제공합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

분류의 범주

IFRS 18은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규정하는 목표는 손익계산서 보고의 다양성을 줄여 투자자의 정보 이해가능성과 회사 간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손익계산서의 구조는 범주로 분류되며, 필수적인 중간합계를 요구합니다.

손익계산서의 항목은 5 개의 범주인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그리고 중단영업으로 구분됩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항목의 분류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3 개의 주요 범주는 영업, 투자 및 재무입니다.

IFRS 18에서는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이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 또는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투자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이라면 다른 업종에서는 영업손익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특정 수익과 비용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나 투자 펀드와 같이 투자를 주요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기업들은 각 요구되는 범주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반영할 것입니다;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주요사업활동으로 인한 손익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요사업활동인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법을 적용한 관계 ·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손익 투자를 주요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기업의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조달에 관여되는 부채와 관련된 모든 손익(예: 일반적인 차입금) 기타 부채의 이자비용 또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예: 연금부채의 현재가치할인 상각)

* IAS 28 문단 18의 예외사항을 적용하여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측정을 IFRS 9에 따른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기업의 주요 사업활동인 해당 투자에서 발생한 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 관련 손익은 투자 범주로 분류됩니다.

PwC 견해 –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위한 자산의 일부로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투자의 결과를 영업외 다른 범주로 분류하여 표시하면, 자산 · 부채 분류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IAS 28 문단 18 적용가능기업은 IFRS 18 최초 적용일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를 IFRS 9에 따라 측정하는 경과규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업 범주

자금제공* 및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포함하여 주요사업활동으로 인한 손익(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요사업활동인 기업의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손익을 포함)

투자 범주

- 지분법을 적용한 관계 ·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손익
- 투자를 주요사업활동으로 하지 않는 기업의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손익

재무 범주

- 부채 중 고객에게 자금제공과 관련되지 않는 부채의 손익(회계정책 선택*)
- 기타 부채의 이자비용 또는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예: 연금부채의 현재가치할인 상각)

특정 유형의 자산에 대한 투자와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모두 주요 사업활동인 기업(예: 은행)의 경우 필수적인 범주에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기업은 자금조달만을 위한 부채의 모든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자금 조달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PwC 견해 – 주요 사업활동에 대한 판단

손익계산서의 범주별 분류는 보고기업 수준에서 수행됩니다. 따라서 기업의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간의 분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필수 중간합계

IFRS 18에서는 기업이 특정 합계와 중간합계를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영업 범주의 결과로 정의되는 '영업손익'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필수 중간합계는 예시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처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 차감전 손익'과 '당기순손익'입니다. 하지만, 주요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자금조달만을 위한 부채의 모든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해당 부채가 고객에게 자금 조달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 범주로 분류하는 기업은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 차감전 손익'을 중간합계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PwC 견해 – 추가적인 개별항목과 중간합계

기업은 주요재무제표에서 유용하고 구조화된 요약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개별항목과 중간합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추가적인 요구사항으로, 기업이 표시하는 이러한 중간합계는 보고기간마다 일관되게 표시되어야 하며 필수로 요구되는 합계 및 중간합계보다 더 강조되어서는 안 됩니다.

IFRS 18 전환의 일부로, 기업은 현재 표시하고 있는 개별항목과 중간합계가 IFRS 18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변동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기업은 '기준서상 금액이 아닌 측정치' 또는 '대체적인 성과측정치' 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성과측정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IFRS 18은 기업의 재무성과와 관련된 이러한 측정치의 하위집합을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s")로 정의합니다. 손익의 중간합계인 MPM은;

- a. 대중에게 재무정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하고,
- b.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전달하며,
- c. IFRS 회계기준의 특정 요구사항이 적용을 받지 않거나 IFRS 18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기준서상 금액이 아닙니다.

재무비율은 손익의 중간합계가 아니므로 MPM이 아닙니다. 그러나 각각 독립적으로 MPM의 정의를 충족하는 손익의 중간합계가 분모와 분자로 표시되는 재무비율은 MPM이 될 수 있습니다.

PwC 견해 – 재무상태표 또는 총액 측정치

대부분의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금융기관은 손익의 중간합계보다 재무상태표의 지표, 손익의 총액 및 규제기관의 측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더 많은 대체적인 성과측정치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체적인 성과측정치(예: 은행의 예대율 또는 보험사의 지급여력자본비율)는 새로운 공시요구사항의 범위가 아닐 것입니다.

MPM은 IFRS에 따른 중간합계 중 가장 유사한 항목과 MPM과의 조정내역을 포함하여 재무제표에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비 GAAP의 측정치를 감사 받은 재무제표의 한 부분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PwC 견해 – MPM 공시사항

어떤 항목이 MPM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은 현재 일반적으로 공시되는 기업의 대체적인 성과측정치 범위 밖에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새로운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그들의 MPM을 정의하기 위한 시작으로 프로세스나 내부통제의 변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통합과 세분화

IFRS 18은 공유하는 특성을 가진 항목을 그룹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통합과 세분화 원칙에 대한 강화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 적용되며, 주요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항목과 주석에 공시되는 정보를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주요재무제표에 표시되는 합계, 중간합계 및 개별항목과 주석에 공시되는 항목들은 각 항목들의 특성을 충실히 표현할 수 있도록 기술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는 사용된 용어의 의미와 집계된 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기술과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

외환차이, 파생상품 그리고 위험회피수단

IFRS 18에서 외환차이는 과도한 원가와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키는 항목의 수익과 비용이 손익계산서에서 분류되는 범주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자금제공이 주요 사업활동이 아닌 기업은 자금조달만을 위한 외화로 표시된 부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를 재무 범주로 분류하게 됩니다.

경제적 위험회피를 포함하여, 기업의 노출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관리하는 위험이 영향을 미치는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는 IFRS 9 또는 IAS 39에 따라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된 비파생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기업이 노출된 위험을 관리하는 목적이 아닌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자금조달과 관련한 일부 거래에는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손익은 재무 범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누가 영향을 받는가?

IFRS 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하는 모든 기업이 영향을 받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하는 성과측정지의 식별과 공시를 포함하여 모든 기업에 동일한 요구 사항이 적용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새로운 기준은 중간재무제표를 포함하여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가능합니다. 소급 적용이 필요하므로 IFRS 18에 따른 비교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록 – 예시

(1) 투자 및 소매은행의 손익계산서 예시

손익계산서 - 투자 및 소매은행

<u>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이자수익</u>	X	
<u>이자비용</u>	(X)	
<u>금융손익</u>	X	
<u>자문 및 수수료 수익</u>	X	
<u>자문 및 수수료 비용</u>	X	
<u>자문 및 수수료 손익</u>	(X)	영업 범주
<u>거래손익</u>	X	
<u>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손익</u>	X	
<u>신용손실</u>	(X)	
<u>종업원급여</u>	(X)	
<u>영업손익</u>	X	필수 중간합계
<u>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손익</u>	X	영업외 투자 및 재무 범주
<u>퇴직급여부채 및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u>	(X)	
<u>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u>	X	
<u>법인세비용</u>	(X)	법인세 범주
<u>당기순이익</u>	X	필수 중간합계

(2) 보험사의 손익계산서 예시

손익계산서 - 보험사

<u>보험수익</u>	X	
<u>보험영업비용</u>	(X)	
<u>재보험영업손익</u>	X	
<u>보험손익</u>	X	
<u>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이자수익</u>	X	
<u>배당 및 금융자산 평가손익</u>	X	
<u>신용손실</u>	(X)	영업 범주
<u>투자손익</u>	X	
<u>보험금융비용</u>	(X)	
<u>재보험금융수익</u>	X	
<u>금융손익</u>	X	
<u>기타비용</u>	(X)	
<u>영업손익</u>	X	필수 중간합계
<u>관계기업과 공동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손익</u>	X	투자 범주
<u>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전 손익</u>	X	필수 중간합계
<u>차입금 및 퇴직급여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u>	(X)	재무 범주
<u>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u>	X	
<u>법인세비용</u>	(X)	법인세 범주
<u>당기순이익</u>	X	필수 중간합계

PwC는 IASB의 제·개정 프로젝트를 요약하여 전달하는 'In brief'와 상세한 실무적용이슈를 다루는 'In depth'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최근 제·개정 소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 자료는 이를 번역한 것으로서 각 사례는 결정 시점 당시 유효한 국제회계기준서를 기초로 작성되어 그 이후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자료는 우리나라 감독기관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24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PwC network and/or one or more of its member firm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